

# 중학생 진로진학 돕는다

### 도교육청, 자유학기제·진로연계교육 전용교실 2026년까지 5개교씩 선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중학생들의 진로진학을 돕는 '자유학기제·진로연계교육 전용교실(커리어존)'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학교 공간의 변화를 통해 진로진학을 위한 실용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상담 및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해마다 5개교 이상 선

정, 교당 5,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군산동산중 이리북중, 함열중, 남성중 남주중 등 5개교가 2023년도 사업에 선정돼 전용공간을 구축 중에 있다.

한편, 자유학기제는 중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며, 진로연계교육은 학교급 전환기 학생들에게 상급학교의 생활과

학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고등학교 소개자료 전시 및 탐색, 상담 및 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학생들의 희망과 학교별 특색을 담아 중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찾고 가꾸는 특색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24일 전북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3년 학생 해외 문화체험 성과발표회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해외 문화체험 참여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민주시민으로'

### 도교육청, 2023 학생 해외 문화체험 성과발표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4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3년 학생 해외 문화체험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는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문화체험에 참여한 학생 200명과 학부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 17~21일 일본에서, 24~29일 싱가포르에서 학생 해외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특히 학생 해외 문화체험은 서거석 교육감의 주요 공약으로, 해외의 다양한 사회·문화·역사·자연환경을 체험함으로써 문화 다양성 교육을 실현하고자 추진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와 학습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면서 학부모들로

부터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전주서신중 이동현 학생은 "해외 문화체험을 통해 일본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고, 외국인과의 소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었다"면서 "해외 문화체험은 나를 한층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고,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도교육청과 인솔해 준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해외 문화체험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온 학생과 인솔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쌓은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지양분으로 삼아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거행

학사 211명 등 총 499명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2022학년도 후기 학사 211명(전주 183명·진천 28명)과, 대학원 석사 144명(전주 128명·진천 16명), 박사 144명(전주) 등 총 4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우석대에 따르면 24일 예정됐던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지 않는 대신 25일까지 학위복 대여와 포토존을 운영기로 했다.

남천현 총장은 "정든 대학을 떠나 그동안 익힌 전문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졸업생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 결사히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학년도 후기 졸업에서 임수희(일반대학원 소비자·안전공학) 박사 이사장상을, 채옥(교육대학원 인공지능융합교육전공) 석사 외 6명이 총장상을, 김보라(경영문화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 외 8명이 대학원장상을 각각 받았다.

/정은성 기자

## '3차원 이중 나노입자 초격자' 구조 구현

### 전북대 김태환 교수팀... 영국 왕립학회 '나노스케일' 표지논문 게재



김태환 교수



윤영진 대학원생

전북대학교 김태환 교수(양자시스템공학과) 연구팀이 용매 증발 방법을 이용해 수용액 상태의 형 구조를 나노입자와 계면 활성분자 마이셀로 구성된 3차원 이중나노입자 초격자를 손쉽게 제조하는 방법을 고안, 이를 활용한 3중층의 이중 나노입자 초격자 구조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전했다.

이 연구는 나노기술 분야의 지명된 국제학술지인 영국 왕립학회(Royal Chemical Society)의 나노스케일(Nanoscale, IF:8.307) 최신호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이 논문에서 연구팀은 서로 다른 용매의 혼합을 통한 마이크로에멀전 형태에서 나노입자의 크기 및 합성을 제어하면서 이중나노입자 초격자 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

를 수행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나노입자 초격자는 다양한 나노물질 응용분야에 대한 높은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나노입자 초격자의 제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나노입자의 표면처리 과정 및 제조의 대한 복잡성으로 인해 장거리 주기성을 가지는 3차원 초격자구조의 구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초격자 구조 제조 방법은 제조 과정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다른 나노입자의 초격자 제조에도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기술이다. 이중 나노입자 초격자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첨단 엑스선 및 증성자 산란 기술을 활용,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CaF<sub>2</sub>, AlF<sub>3</sub>, NaZn13)의 초격자 구

조를 구현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플라즈마 및 양자빔응용공학과 윤영진 박사과정생이 주도했다. 윤 연구원은 지금까지 나노입자 및 연성소재 관련 연구를 통해 제1저자로 발표한 3편의 SCI 논문을 포함해 총 6편의 SCI 논문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물리화학 분야의 지명된 국제학술지인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의 저널 오브 피지컬 케미스트리 레터스(The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Letters)에 표지논문으로 선정되는 등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윤영진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연성소재를 이용한 온도 민감성의 나노복합물질을 제조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한다"면서 "연성소재 나노입자의 자기조립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것과 함께 나노물질을 이용한 광전자소자, 광촉매, 바이오센서, 태양전지 등 차세대 응용소재의 개발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 "학생인권조례 왜곡 멈춰라"

###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 위한 시민연대, '교육부 교권 회복 보고 강화 방안, 학생인권조례 혐오 내용 그대로 담아 정책화'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왜곡과 혐오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시민연대는 성명에서 교육부는 지난 23일 교사에게 집중되는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오직 학생생활지도와 학부모민원대응에만 초점을 둔 교권 회복 및 보고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는 결국 교사를 힘들게 한 책임을 학생·학부모에게만 떠넘기는 꼴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방위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억측, 그리고 혐오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 정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러 시민연대는 "교육부에서 지난 17일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교사가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며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 지원이라는 추진 과제를 설정, 조례 재검토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조례를 만들고 고쳐나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인데, 중앙정부가 조례를 불합리하다고 규정하고 조례 예산안까지 제시하며 개정을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한 사

생활의 자유는 휴대전화 소지·관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등교시 일괄수거를 지양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해석이지, 수업시간에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인해 수업 중 칭찬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룬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며, 잘한 학생에게 칭찬과 상을 잘못된 학생에게 지도와 벌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휴식권 또한 쉬는 시간을 반복적으로 박탈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수업 중에 잠자는 것을 내버려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지난 22일 전북교사노동조합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장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먼 해석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혐오를 유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은성 기자

### 서거석 교육감, 유치·특수학교 교장들과 교육활동 보호 간담회

서거석 교육감은 24일 전북교육청 강당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장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민원 대응 시스템 마련, 특이 민원 대응력 강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에 교장들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민원 처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25일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장 50여 명을 만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농촌유학 권역별 학부모 간담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학부모 간담회에 나섰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농촌유학 업무담당자가 참석하는 이 간담회는 25일 순창을 시작으로 28일 정읍, 30일 완주와 31일 김제와 고창, 다음 달 5일 장수과 임실 등 권역별로 갖는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궁금증과 건의사항 등을 파악함으로써 내년 농촌유학 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현재 농촌유학을 운영하는 18개 학교 이외에 희망학교를 추가로 모집해 내년에는 농촌유학 운영학교를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촌유학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유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2024학년도 수시모집 시작

### 내달 11~15일 접수... 정원 내·외 2802명 선발

### 웹툰만화콘텐츠학과, 식품영양학과 등 신설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9월 11~15일 2024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4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2,882명 중 2,802명(97.2%)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은 914명(일반학생전형 794명, 사회통합전형 88명, 기회균형선발전형 62명)을 모집한다. 2024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기준이 변경돼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업능력(50점), 핵심역량(20점), 전공 능력(30점)으로 평가한다.

또 학생부교과전형으로는 1,717명(일반학생전형 1,281명, 지역인재1전형 90명, 지역인재2전형 2명, 재직자전형 55명, 농어촌학생전형 37명, 특성학교고졸입자전형 35명, 만학도전형 105명, 특성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100명,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12명)을 모집하며, 모집단위의 계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성적에 산출해 선발한다.

특히,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미래융합대학에 재직자전형과 만학도전형이 신설됐으며, 반려동물학과, 친환경자동차학과, 로컬벤처학부 등을 정원 내·외로 모집할 예정이다.

실기/실적위주전형으로는 예체능계열 일부 학과에 한해 171명(일반학생전형 138명, 특기자전형 33명)을 선발한다.

이와 함께 2024학년도 학사내부구조 개편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 고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인문콘텐츠학과 웹툰만화콘텐츠학과·한국어문화창작



학부(한국어문화, 웹툰창작), 의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공과대학 신소재화학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데이터공학과, 문화융합대학 축구학과·태권도학과, 미래융합대학 미래르비학부·반려동물학과·친환경자동차학과·로컬벤처학부 등이 신설됐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면접고사 없이 서류평가 100%로 선발할 예정이며,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진로선택 과목 가산점 제도를 확대해 성취도 상위 3 과목을 전형 총점에 가산해 뽑는다. 다만 진로선택 과목 미이수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비교과신을 적용한다. 이어 2024학년도 수시모집부터는 졸업생과 졸업예정자가 동일하게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해 선발할 예정이다.

전주대 관계자는 "면접/실기고사 모두 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은 모든 전형에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학생부중앙 063-220-2701/학생부교과·실기 063-220-2700) 또는 입학홈페이지(ipak.j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 "2학기 현장체험 어린이통학버스만 이용? 안될말"

### 전교조 전북지부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2학기에 어린이 현장체험학습 가능할까 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성명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준수 홍보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 문제는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이 도내에 얼마나 있는지에 있다.

현재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일반적인 대절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2학기에 진행될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교육부는 대책 없이 공문만 내려보냈고, 이에 교육청도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

라고 했다. 이미 2학기가 시작돼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고 있을 교사들과, 기대하고 있을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황당할 것인지, 일대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고 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중에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대책없이 안내 공문만 내려보내는 무책임한 교육당국을 규탄하며,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2학기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당장 경찰청과 협의해 교의 활동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책 마련 전까지는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교의활동 중단 지침을 학교에 전달하라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독일문화주간 행사 프로그램 진행

### 독일 대사관 등과 협력 강연·체험 등 다채



전북대학교 독어교육과(학과장 신효식)와 독일학과(학과장 김화림)는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2023 전주 독일문화주간 행사'에서 인문학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두 학과는 지난 5월 주한독일대사관 및 주한독일문화원과 협력을 약속하는 등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에 따르면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전주 덕진공원 연화동 도서관을 비롯해 전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독일문화주간 행사에서 전북대는 독어교육과와 독일학과 학생들이 결합한 독일 현지문화를 소개하는 Hallo, Deutschland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편 이 학과들은 지난해 기부된 80여 명의 '김정숙 장학금'을 통해 매년 학생들에게 독일 어학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대 독어교육과 신효식 학과장은 "독일 대사관 및 문화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주에서 진행되는 독일 문화주간 행사가 보다 풍성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대학이 갖고 있는 독일 문화와 관련한 역량을 시민들이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